

# 부르심에 순종

성경 사무엘상 3:1-14

## 신 67 쉼대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시작해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지 생각해 볼까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기뻐하세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 찬양

### 1 따스한 성령님(은혜의 찬양 206장)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 2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찬송가 440장)

1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2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롭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3 어둔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길이 살리라

[후렴]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 말씀 읽기 사무엘상 3:1-14

- 1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 2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 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 3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와 전 안에 누웠더니
- 4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 5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 6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이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 7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와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 8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 9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 10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 11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 12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 13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 14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 본문 배경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고,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일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 엘리도 눈이 어두워져 거의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마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 방에 누워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막 안 자기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자신을 부른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물랐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총 3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그때마다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세 번째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사무엘에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말하도록 알려 주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려 주십니다. 앞선 2장에서 알 수 있듯이 엘리의 아들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엘리와 그의 집안을 버리셨고, 하나님을 위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충실한 제사장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 말씀 관찰

#### 1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답했나요?(10절)

**답**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답했습니다.

**해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답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부르심을 들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주님의 부르심을 들으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답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알려 준 대로 답합니다. 사무엘의 응답에서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려는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 2 엘리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13-14절)

**답**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해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습니다. 아버지를 이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소홀히하고 멸시했습니다. 엘리가 아들들을 타일렀지만 그들은 엘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들을 대신할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했지만 교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 말씀 적용

- 1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은 어떤 것인지 나누어 보세요.
- 2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 5-2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사무엘상 3장 10절

♩ = 104

작곡 고보영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

5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

9 사무엘 - 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

13 주의 종 - 이 듣겠나 - 이 나 - 하니 -

17 사무엘 - 삼 삼 장 십 절 말씀 - 아 멘 -



### 가정예배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날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가정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